

## 6평 대비 EBS 수능 특강 필수 확인

### 1. 개념 부분

#### \* 보는 법 : 숫자(쪽수)-Zola Guide

- 9 위 개념 플러스 - 기술·메타 윤리학은 교과서에 내용이 부족함. ebs 자료가 중요한 주제임.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으나 기출 제시문으로 출제된 적은 있음.
- 12 자료 플러스 - 공감에 대한 '최초의' 사상이 제시문임. 한 번 읽어볼 것. 칸트와 짝(대비)이 되는 문제 가능함.
- 20~26 개념 플러스+자료 플러스 - 사상가와 관련된 제시문은 선지로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다 읽어 볼 것.
- 34~35 죽음관 사상(가) 주의. 참고로 18학년도 수험생은 도가와 에피쿠로스를 헷갈려 했음. 올해는(!) 35쪽의 장자의 죽음에 대한 제시문 특히 주의할 것!!!! 불교로 오해될 소지가 큼.
- 참고로 유가-도가-불가의 제시문은 '죽음관-이웃윤리(73쪽)-자연관(97쪽)'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주제는 달라도 사상의 원리(개념)는 동일하기 때문임.
- 50 위 자료 플러스 - 환경 윤리와의 연결됨. 18학년도 수능에도 '환경윤리(레건)+동물실험' 형태로 출제되었음. 불교 윤리도 환경 윤리로 출제될 가능성 높음.
- 58(~59) 아래 자료 플러스 -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가끔씩 나옴. 독해문제였지만 개념 있으면 편함. 정답률이 70%까지 떨어진 적 있으니까 살짝 주의할 것. 교과서(교학사, 미래엔, 비상교육)에는 스티븐버그라는 사상가도 있음. 처음 나올 때는 독해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음.
- 68~70 자료 플러스+기출 플러스 - 유가 사상임. 유가 사상의 특징 확인 및 보조단 잘 봐둘 것!
- 71 보조단 확인!
- 72 자료 플러스 -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용임. 17학년도 9평 3번 문제(정답률 60%대) '독해'로 푸는 연습 할 것!
- 73 자료 플러스 - 불교의 연기설 필수 개념!!
- 81 개념 플러스 - 가치 중립, 가치 개입과 관련해서 알아 둘 것.
- 92~96 개념 플러스+자료 플러스 - 사상가를 외우기보다 독해 point를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함.
- 96 아래 자료 플러스 - '심층 생태주의 기본 원리' 주의. '정확한' 개념과 독해력이 부족하면 테일러(생명 중심주의)로 오해함!
- 110 위 자료 플러스 - 밀의 자유론은 지식으로 암기할 것. (1)공리성에 근거해서 자유를 옹호 + (2)자유 제한의 '유일한' 조건 + (3)진리가 합의와는 무관함
- 119 자료 플러스 - 니부어 필수 사상가임. 기출 제시문과 선지 모두 확인! 분명 님들이 헷갈리는 표현들이 있을 것임!

- 120 자료 플러스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 암기해 둘 것
- 121~122 자료 플러스 - 노직·롤스 필수 사상가. 기출 제시문 모두 확인
- 123 자료 플러스 - 벤담 필수 사상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의 처벌의 정당화 조건들을 표현하는 것 주의할 것. 예를 들면 제시문의 셋째 줄 '처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와 같은 표현을 독해할 수 있어야 함!
- 124 자료 플러스 - 칸트, 베카리아 모두 필수 사상가. 기출 제시문과 선지 모두 확인!
- 132 개념 플러스 - 인권 3세대론. 18학년도 수능에 처음 등장함!
- 133 자료 플러스 - 인권 3세대론을 이용한 자료 분석형으로 출제 가능함. 이 경우 인권 3세대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유리함.
- 136 자료 플러스 - 준법의 근거 확인할 것. 시민 불복종과 짝이 되는 주제임.
- 137 자료+기출 플러스 - 시민 불복종의 의미와 특징을 외워서, 개념으로 해결되는 것은 그냥 넘어갈 것.(137쪽 맨 위)
- 145 자료 플러스 2개 - 칼뱅과 마르크스 직업관 확인. 칼뱅은 구원예정설을 제대로 모르면 직업 소명설이 자꾸 꼬이게 됨.
- 149 아래 기출 플러스 - 공직자 윤리도 넓게 보면 직업관의 하나임. '공직'의 특징을 알고 있는 것이 문제 푸는데 도움됨(149쪽 위 내용)
- 157 칸트 예술관 - '미는 선의 상징이다.'가 담고 있는 이중적 의미를 알아야 함. 자신이 듣는 개념 강의에서 확인해 둘 것.
- 160 자료 플러스 - 엘리야데 사상 쉬운 것 같지만 기출 제시문을 잘 확인하면 킬러 선지들이 있음.
- 182 자료 플러스 - 해외 원조 잘 확인해 둘 것. 노직은 원조가 '자유'이지만 '의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가톨릭대 논술 문제로 출제되었음. 단 제시문에서 단서나 조건을 제시하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음)
- 183 위 자료 플러스 - 갈통의 평화론 확인! 기출은 쉽게 나왔음. 그러나 기출 및 ebs 제시문에 킬러 선지들이 있음.
- 183~184 아래 자료 플러스+기출 플러스 - 정의 전쟁론. 사상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 전쟁론 개념+독해로 충분히 풀 수 있음
- 184 아래 개념 플러스 -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독자적 개념으로 암기 해 둘 것. 특히 칸트 확정 조항 3개는 암기 필수! 예비 조항6개도 5회독 할 것!

\*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은 '독해'로 해결 가능한 것들임!

## 2. 문제 부분

### \* 보는 법 : 숫자(쪽수)-숫자(번호)-Zola Guide

- 15-8 - '밀의 자유론' 사상 알아둘 것. 110-위 자료 플러스 내용 확인! 평가원 기술 문제도 2개가 있으니 확인!
- 16-1 - 그림의 X-Y-Z축에 해당하는 내용 잘 확인!
- 17-3 - 독해로 가능함.
- 19-7 - 국어에서 배운 연역, 귀납에 대한 지식과 연관됨. 연역(3단 논법)은 12쪽 아래 윤리적 탐구 방법의 도덕적 추론이 3단 논법에 대한 것임.
- 27-4 + 45-7 제시문 - 자연법 윤리에 대한 지식 확인!
- 29-2 - 덕 윤리 사상가가 아리스토텔레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
- 31-5 - 학생들 얘기를 잘 확인해!
- 32-8 - 환경윤리 문제이기도 함. 을이 요나스임. 요나스를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로 외우고 있으면 틀리기 쉬운 문제임. 요나스는 '그냥' 책임 윤리라고 알고 있으면 그만임!
- 33-9 - 밀의 '합리적 판단자(쾌락의 전문가)'에 대한 제시문임. 잘 확인해 둘 것!
- 42-2 - 동양 사상은 일단 지식으로 정리해 둘 것.
- 53-7 - 개체 복제(생식용 복제)는 배아 복제(치료용 복제)와 구분되는 개념임. 주의할 것.
- 56-5 - 환경 윤리에 나올 수도 있음. 동물 중심주의(싱어)임! 바나나 선지 확인할 것!
- 56-6 - 문제의 구조(구성)를 바라. 복잡적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집중력이 필요하다!! 올해에도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기대됨. 문제의 구조는 모든 주제·개념에서 적용될 수 있으니 이 문제의 구조를 잘 확인해 둘 것.
- 57-8 - 자료 분석형 문제임. 이런 문제 GOOD! 17년-10월 교육청-9번 문제도 이런 유형임! 지식 필요없고 집중력이 필요함!
- 64-7+65-2 - 에리히 프롬임. 제시문도 잘 확인해 둘 것! 독해로 해결 가능하지만 지식이 있으면 정답률 높이는 데 많이 도움됨. 사랑은 '기술', '활동', '능동'임! 사랑의 4요소는 '관심(보호)', '지식(이해)', '책임', '존경'임!
- 74-1 - 혼례(결혼, 부분)의 정신인 삼서 정신 확인(선지 ⑤)! 결혼은 두 성(姓)이 만나는 것. 여기서 성(姓)의 의미 확인(선지 ④)!
- 75-7+76-2 - 나올까? 나온 적은 있음(윤리 시절에). 6평과 9평까지 기다려 봐도 됨.
- 78-5 - 불교 사상(연기설)을 알아야 함. 불교의 죽음관-자연관으로 해결됨. 유·도·불 비교하는 것도 대비해 둘 것.
- 79-8 - 같은 유가 사상 지식 있는 것이 편함. 을은 아리스토텔레스 -> 17학년도 9평 3번 문제(정답률 60%대) '독해'로 푸는 연습 할 것!
- 90-6 - 요나스. 선지 ① 주의할 것. '연대' 책임과 '상호' 책임 구분 못하는 banana 많음! 17-6평-3번의 선지 ①과 비교할 것!

- 91-8 - 과학 기술 지상주의, 환원론, 기계론, 도구적(기술적) 이성 확인할 것. 독해로 가능하지만 기본 개념 알고 있으면 편함.
- 99-3+102-3 - 유·도·불 사상 확인할 것. 죽음관과 자연관, 인간관계(가족 및 이웃 공동체 윤리), 해외원조 등등 응용의 범위가 넓음. 2~3년 계속 죽음관에 한정되어 나왔으므로 다른 주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음.
- 103-5 - 선지 ①의 의미 주의. 선지 ③과 18-수능-11번 <보기> ㄱ 의미의 차이 확인해야 함!
- 104-7-(나) - 심층 생태주의 자료(96쪽) 잘 확인할 것. 7번 문제의 제시문은 쉬움.
- 105-9 - 문제 유형 주의할 것. 여러 응용 유형이 가능하므로 나오면 집중해서 풀 것!!
- 127-1 - 제시문 롤스임. Zola 始發(Cival) 모고에서 제시문의 앞부분만 따로 떼어 내니까 니부어랑 헷갈려하는 수험생 많았음.
- 129-5 - 제시문 4번째 줄.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의 의미를 잘 알아둘 것. 선지 ③ 형벌의 '양과 질' 너무 고민하지 마라. 양은 되지만 질은 안 되나? 양과 질 중 하나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따 고민하지 마라! 생운에서 '형벌의 양'과 '형벌의 질'을 구분해서 배운 적 없다(적어도 교과서에서는!!) 지식으로도 안 배웠고, 제시문에서도 알 수 없는 것은 시험장서 고민하지마!
- 129-6 - <보기> ㄱ과 ㄷ의 잘 확인해 둘 것. 특히 ㄷ은 롤스의 '가상 상황'과 '현실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면 banana가 됨!
- 130-8 - Y축. 불안해서 물어보는데 '형식적 평등(기회균등)'과 '실질적 평등(기회균등)' 구분할 수 있지?
- 131-10 - (가)의 '갑'과 '병'. 형벌의 '강도'와 '지속성'을 근거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139-6 - 인권 3세대론. 18학년도 수능 20번에 처음으로 등장(단, 독해형이었음). 이제는 지식형 대비해 둘 것.
- 140-2 - 준법의 근거도 확인할 것. 시민 불복종 계속 나왔으니 준법도 나올 때가 되었음.
- 142-5 - 자료 분석형임! 교과서에는 게임 이론, 기대 비용 이론, 주인-대리인 모델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개념보다는 자료 분석형이니까 자료 보고 판단하는 연습을 하면 그만임!(개념이 아닌 문제들은 답을 외울 필요가 없음!)
- 150-4+151-8+152-2+155-7 - 선지가 쉽다. 제시문 잘 확인해 두고 기출 제시문과 선지들 잘 확인할 것! 교과서 있으면 교과서 자료의 제시문도 꼭 확인!
- 177-6 - 다문화에 대한 태도 한 동안 나오다가 안 나오고 있음. 준비는 해 둘 것. 개념 공부 살짝 필요함.
- 186-6+188-4 - 칸트의 영구 평화론 외워!
- 186-8+189-6 - 해외원조는 기출 제시문과 선지 필수 확인!
- 190-8 - 갈등의 평화 '개념'으로 확인해 둘 것. <보기> ㄷ은 개념이 필요함. 그리고 기출이 독해형으로 출제되었지만 기출 제시문이나 선지에 낡지 가능한 것들이 있으니 다시 확인해 봐!
- 191-9 - 나름 독해(추론)형임.

<필수 암기 목록>

생활과 윤리 주제(개념) 중에서 **지식이 필요한** 목록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독해형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6평뿐만 아니라 수능 공부 및 정리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단원	너네들의 암기	목록임!!!!
I. 현대 생활과 응용 윤리	(1) 윤리학의 구분	
	(2) 다양한 윤리학 이론	
II. 생명·성·가족 윤리	(3) 죽음관	
	(4) 가족 관계(부부-부자-형제자매)	유가
III. 과학기술·환경·정보 윤리	(5) 동양 자연관 vs. 서양 자연관	
	(6) 환경윤리-인간, 동물, 생명, 생태	
IV. 사회윤리와 직업윤리	(7)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니부어)	
	(8) 분배 정의(노직, 롤스, 공리주의, 마르크스, 아리스토텔레스)	
	(9) 사형제도	
	(10) 인권 개념의 변화	
	(11) 시민불복종	
	(12) 직업관(일부만 : 순자의 예, 플라톤, 칼뱅, 마르크스)	
V. 문화와 윤리	(13) 다문화에 대한 태도	
VI. 평화와 윤리	(14) 민족주의 vs. 세계시민주의	
	(15) 해외원조	
	(16) 전쟁론(알처)과 평화론(칸트, 갈통)	
	(17) 도덕 추론 과정(3단 논법)	
출제??	I	
	VI	(18) 국제관계이론(현실주의, 이상주의)
	V	(19) 문명충돌론vs.문명공존론

**열공+즐공=대박!!!!**



↳ 수업 중에 얘기한 Zola와 쭈 중에서 Zola만 밝는 '미'임당!